

하박국 강해⑩ “주의 영광이 놀랍습니다.”

하박국 3장 7-19절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데도다
8.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
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
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14.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흘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데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노래”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란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승리란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도로. . .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기도의 특권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부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 부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광스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기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갑니다.

때로 우리는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지만 기쁨이나 감사가 아닌, 한숨과 염려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씨름했다면 주님과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난 후에 다시 ‘아이구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앞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혹시 현재 드리는 기도의 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노래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죠. 하박국의 환경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전 아주 리얼하게 묘사된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경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내부 기능이 마비되고 꼬여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 말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면서 극심한 공포로 인해 눈과 입 주위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박국은 그의 입술이 떨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옛날 어른들이 쓰시던 말이 있습니다. ‘뼈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죠. 성경에도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뼈가 마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로 보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무섭게 도륙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그 칼이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고통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몸은 가늘 수조차 없어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공포와 절망의 모습! 이것이 하박국이 처한 구체적이고 리얼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3장 16-19절 말씀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R. T. 켈달은 그의 책 『하나님을 열망하라』에서 ‘영광’으로 번역되는 두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카봇’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게나 체격과 관련하여 쓰이는 것으로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중에 오셔서 그 거룩한 무게가 주변에 느껴질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표현한 내용들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켈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찬송의 담임자로 부임해서 전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여섯 살에 불과했던 때, 그녀의 아버지가 영국의 ‘웰쉬 부흥’(Welsh Revival, 1904-1905)을 경험하도록 사모님을 데리고 나와서는 런던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태웠다고 합니다. “학교야 언제든지 다닐 수 있지만 이런 부흥은 다시 보지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사모님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녀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성령 집회 중에 엄청난 무게가 자신들을 압도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영광은 헬라어의 ‘독사’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송’이라는 말이 ‘doxology’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독사’는 찬양 혹은 명예, 명성을 뜻하는데 이는 본래 ‘의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분의 의견 혹은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12절이 그런 의미겠지요.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존엄한 뜻’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만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20절

19. 여호라게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 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경험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는 아마도 ‘카봇’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박국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인 ‘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제 하박국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를 갈구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피폐한 자신의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편지 마지막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번역하면 '승리 편에서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편지 맨 마지막에 항상 "승리 편에 서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쓰곤 했습니다. 공문서에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크롬웰 장군에게서 내려오는 공문서를 읽을 때마다 그 휘하의 참모들과 스텝들은 그들의 상관이 승리를 확신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모든 부대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진 후부터 전세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크롬웰과 부하들은 근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 .

하박국 3장 17-18절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은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라도
- 18. 나는 여호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승리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찬양은 감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1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감사절이 되면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9일 동안의 여정을 지나왔기에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 무성하게, 주렁주렁 열어야 할 무화과 열매가 없다 - **돈**이 없다는 것,
-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 **마실 물**이 없다는 것,
- 감람나무열매에 소출이 없다 -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름**을 만들 수 없다,
- 논밭에 식물이 없다 - **빵**을 만들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
- 우리의 양이 없다 - 이제 **버터와 우유**,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을 근거도 없다,
-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일을 도와줄 소**도 없다는 것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과 유대민족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들이 없어도 오직 하나이신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전 울란바트로 대학의 윤순재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처음 선교사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고기만 먹었습니다.
말고기, 낙타고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 .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감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한 보따리 사서
이집 저집 나눠주고 집에 와서 먹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양파가 나와있더라고요. 그 날은 돌아와서 한 주간 내내 양파 파티가 열
렸답니다. 양파 볶음, 양파 지짐, 양파 국. . .
어느 날 홍당무가 시장에 나오는데,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 졌데요.

최악의 생활을 연상하며 살던 때는 매일 매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풍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잃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베풀어주신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분명한 진리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변의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무 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니, 다른 무엇이 있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의미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린 아이가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은, 호흡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생명만 없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만 불어넣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이 생기고, 형체가 생겨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기적이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회복"이라고 하면, 나에게 잃어 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이 없을 것
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보다 더 과장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지 못하기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리빙스톤의 멋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마치는 날,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부흥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는 자의 기쁨과 감사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Disturb us, Lord

Disturb us, Lord, when we are too well pleased with ourselves,
When our dreams have come true because we dreamed too little,
When we arrive safely because we sailed too close to the shore.

Disturb us, Lord, when with the abundance of things we possess,
We have lost our thirst for the waters of life;
Having fallen in love with life, we have ceased to dream of eternity;
And in our efforts to build a new earth,
We have allowed our vision of the new Heaven to dim.

Disturb us, Lord, to dare more boldly,
To venture on wider seas where storms will show your mastery;
Where losing sight of land, we shall find the stars.
We ask you to push back the horizons of our hopes;
And to push us in the future in strength, courage, hope, and love.

This we ask in the name of our Captain, who is Jesus Christ!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Disturb us, Lord) / 죠나단 리빙스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만족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 졌을 때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 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소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소서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